근로장려금 올 9월부터 준다

▲근로장려금(EITC) =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생계비.

연간 최대 120만원…세법 시행령 개정

지방주택 1채 더 사도 1주택자로 인정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이 오는 9월부터 지급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지방 소재 1주택 또는 등록 문화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주택자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근로장려금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으로 연소득이 800만원 이하인 경우 총소득 금액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1만5천원씩 근로장려금이 늘어난다.

연소득 800만원 초과~1천200만원 이하는 120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그러나 총소득이 1천200만원이 넘으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장려금은 2만4천원씩 감소해 소득이 1천700만원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지방 소재 1주택 또는 등록 문화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주택자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은 9억원이 적용되고 장기보유공제, 고령자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 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은 3만원으로 유지된다. 당초 기준금액은 올해부터 1만원 초과로 개정됐으나 현실을 감안해 지난해 수준인 3만원으로 최종 수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소액의 식사비·택배비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 증빙을 확보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으면 거래금액의 2% 가산세를 지불해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기업, 신용카드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 완화**
  증빙 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 상향 조정(1만원 초과→3만원 초과)
-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손익평가방법 개선**
  원가법과 시가평가법 중 선택 가능
- **1가구 1주택자가 지방 소재 1주택 혹은 등록 문화재 주택 취득시 1주택으로 인정**
  과세기준금액 9억원 적용, 장기보유공제, 고령자공제 허용
- **장애인 작업시설 투자 세액공제**
  기업이 장애인 고용 위한 작업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7% 공제
- **근로장려금(EITC) 산정표 개정**
  근로장려금액 상향 조정(최대 연 80만원→120만원)

〈자료:기획재정부〉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불황 극복 다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김향덕)는 15일 오후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2009년도 제11차 정기총회 및 신년 인사회'를 갖고 경제위기 극복에 회원들이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李대통령 "임금 낮춰 고용 늘리자"

고통분담 차원 '잡 쉐어링' 방법 강구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관련,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쉐어링'(job sharing)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당장 눈앞에 시급한 것은 가장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일용직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실업난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세종로 포럼 강연에서 올해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영 악화로 인원을 줄여야 함에도 일자리를 나누고 고통을 분담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나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향후 잡 쉐어링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일자리 나누기로 인원 조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주가 71.34P↓ 환율 44원 ↑

글로벌 금융시장 '2차 패닉'오나

대형금융사 재무상태 악화… 몰락 기업들 속출

경기에 대한 불안과 기업 실적악화 우려 등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

코스피지수는 15일 전날보다 71.34(-6.03%) 내린 1,111.34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가 6.03% 내린 것은 지난해 11월20일 -6.70% 떨어진 이래 처음이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21.28포인트(5.84%) 내린 343.35에 마감, 사흘만에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44원 이상 폭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44.50원 급등한 1,392.00원으로 거래를 마쳐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필수기자 bungy@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등의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사태 등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것이 속속 확인되고 판매부진과 자금난으로 몰락하는 기업들도 속출하는 등 '2차 패닉(공황)'이 임박했다는 공포감이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베어스턴스 메릴린치 등이 파산하거나 인수된 것이 1차 금융위기였다면 이번에는 재무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꼽혔던 금융회사들이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4분기에 48억유로(한화 약 8조6천억원)의 적자를 내 3분기까지 흑자를 모두 까먹고 지난해 전체로 39억유로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유럽 최대 은행인 HSBC홀딩스와 미국의 웰스파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모건스탠리는 HSBC가 200억~30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고 배당금도 절반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메릴린치를 인수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가 정부로부터 추가 자금지원을 받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현지시간) 메릴린치를 인수한 BOA에 미 정부가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씨티그룹은 증권영업 부문인 스미스바니를 떼어내 모건스탠리와 합작사를 설립키로 했다. 하지만, 자금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씨티그룹은 16일 발표할 4분기 실적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해 자금난이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14일 씨티그룹 주가는 23%나 폭락하면서 5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앞서 이달 초 미국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전미경제학회 연례 학술대회에 참석한 많은 경제학자들도 금융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금융시장에서 2~3차례 소용돌이가 몰아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채시장 내몰리는 서민 대출 확대"

광주 온 권오만 신협 중앙회장

"대출을 받지 못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일이없도록 서민 대출을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15일 광주 상무리츠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신년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권오만 신협 중앙회장은 "정부가 금융권에 돈을 풀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서민들에게 은행 문턱은 아직도 높다"며 "신협이 금융권과 사채시장의 중간에서 서민들의 돈줄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10년전 IMF를 겪으면서 신용대출 비중을 많이 낮춰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들이 대출받기가 힘들어 졌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용대출 비중을 늘려 서민들에게 대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07년과 2008년 2년 연속 전국 종합평가에서 1위를 한 신협 광주전남본부 등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